

1년 지났는데... 희생자 추정 유해 추가 발굴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잔해물 추가 조사

유해 1점·유류품 154점 등 사고 흔적 다수 발견 유가족 “원점 재점검 촉구...안전 담보 재개항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잔해물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초기 수습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공항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원점 재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23명)가 사고 기 잔해물 추가 조사를 벌이던 중 희생자의 인골로 추정되는 유해 1점(25cm 가량)과 유류품 154점을 발견했다.

해당 물체는 대형 마대에 담겨 보관 중이던 기체 잔해를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된 유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과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인골로 최종 확인될 경우 기존 희생자 DNA와 대조해 유가족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으며, 당시에도 희생자 옷가지 등 유류품 10여점이 추가로 발견된 바 있다.

재조사는 노면에 흩어져 있던 기체 잔해물 컨테이너 4동으로 옮겨 분류·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형 꼬리날개는 별도 가건물에 보관하고 있으며, 조사는 10여명씩 3개 조로 나눠 10차례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족들은 유해와 유류품이 잇따라 발견된 데 대해 “참사 당시, 생명에 대한 예우보다 ‘빠른 수습’과 ‘상황 종료’에만 급



26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계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 기체 잔해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유가족협의회

급했던 정부의 무책임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보는 “사고 직후 수습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유해와 유류품이 1년이 지나 다시 발견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철저한 재조

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무책임과 거짓 대응이 일부 드러났고, 항철위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돼 새롭게 체제를 갖추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시점에서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떠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가족협의회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무안공항 재개항 언급과 관련해 “무안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국가 책임과 국민 안전을 증명하는 시험대”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속한 재개항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안전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 안전 시스템을 완벽히 구제적인 행보를 보일 때, 비로소 무안공항은 정상 운영의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항 시설물 안전성, 조류 예방 시스템, 관제·비상 대응 체계 등 근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재개항은 또 다른 참사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경제 논리나 정치 일정이 아닌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오늘의 날씨

맑음	07:05	달림	13:43
맑음	18:26	달림	04:09



광주	6~16
목포	5~11
여수	7~12
순천	6~15
구례	4~16
광주	5~14
신도	6~14
흑산도	5~10
고흥	6~13
진도	6~11

목포	밀물(고)	10:48 / 22:51
	썰물(저)	03:00 / 16:50
여수	밀물(고)	06:25 / 18:39
	썰물(저)	13:00 / --:--

광주·전남경찰,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총 370명 투입...순찰차 등 136대 동원

광주·전남 경찰이 3·1절 전후로 반복되는 이륜차 난폭운전과 폭주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시·군·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부터 3월1일 새벽까지 광주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3·1절을 계기로 한 폭주 주 분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광주경찰은 교통의근·교통순찰대·교통법집수사팀 등 154명과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 장비 56대를 투입한다. 주요 교차로와 폭주 예상 집결지에서 음주단속을 병행하고, 거점 배치와 가시적 순찰을 통해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 불편

을 초래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 교동안전공단, 지자체와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과 도·자치경찰위원회도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교통 의근과 교육경찰 순찰대 등 인력 216명과 장비 80대가 동원된다. 경찰은 주요 교차로와 상습 출몰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과 거점 단속을 병행한다.

한편 국에 운전과 소음 유발 행위(도로교통법), 번호판 가림(자동차관리법), 불법 구조변경·부차 등이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산불 진화 모의훈련’ 26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학산사 일원에서 서구청, 산림재난대응단, 서부소방서 등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차, 소화기, 등짐펌프 등 장비를 동원해 산불 초동 대응부터 진화 완료까지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운영하는 ‘산불 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6개 대학, 교육부 ‘AI 부트캠프’ 선정

전남대·조선대·순천대·국립목포대·광주대·조선이공대

전남대·조선대·순천대·국립목포대·광주대·조선이공대 등 광주·전남 6개 대학이 교육부 ‘2026 AI 부트캠프’에 선정됐다. 이중 전남대는 건국대와 함께 ‘미래차 부트캠프’에도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6일 “전국 41개 대학을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

과 기업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시대에 중요성이 증대되는 로봇 분야 2개교, 미래차 2개교를 새로 선정했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37개교는 지역별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30개교(대경권 6개교, 동남권 6개교, 충청권

6개교, 호남권 6개교 및 강원·전북·제주 6개교), 수도권 7개교(서울 3개교, 경기·인천 4개교) 등 권역별로 지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분야 87개교(경쟁률 2.35:1), 로봇 분야 5개교(경쟁률 2.5:1), 미래차 분야 11개교(경쟁률 5.5:1) 등 총 103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기업과 5년간 총 71억2500만원 내외(연간 14억 25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신규 대상 접수

전남도교육청이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미신청자와 타 시·도에서 전입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4년 3월 도입된 교육복지 정책으로,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경제 관념을 기를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6학년도에는 국가 아동수당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지원 체계를 일부 조정한다. 아동수당을 받는 초등학교 1~2학

년은 올해 2월까지지만 기존 수당을 지급하고, 대신 지원 범위를 중학교 2학년까지 넓혀 중등 단계의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급 대상은 초3년부터 중2년 재학생, 그리고 진도군 소재 중·고교 재학생으로 정해졌다. 지원액은 초등학교 월 10만원, 중·고등학교 월 5만원이다.

3월부터 새롭게 수당을 받게 되는 학생은 10월31일까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놓고 ‘책임 공방’

도교육청 “3월 개교 차질·학생 피해” 유감 표명 법무부 “사전 논의·통보...미성년 학생 유치 우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미래국제교외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소재와 정책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사전 예고나 유예가 없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의 논의 경과와 통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고교 이하 미성년 학생비

자(D-4-3)는 자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기관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교육나눔’ 또는 ‘최소년 국제 교류’ 목적으로 전액 장학금 형태로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역 취업과 정주를 연계하는 방식의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 문제를 두고 관계 부처 및 교육계와 중

의견을 교환했다”며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 사증 발급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 6월 법무부 주관 관계부처·시·도교육청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간담회,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올해 1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증 발급 중단 방침을 일렸음에도 일부 교육청이 외국인 학생 모집과 비자 신청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비자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2월 2일 ‘교육나눔 목적’이 인정된 일부 학교에 대해 발급을 승인했으며, 나머지 학교에는 불허 예정 사실을 설명한 뒤 2월 13일 최종 불승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성년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련한 우려도 재차 강조했다. 취업비자 발급 가능성을 과장해 국내 취업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 불법 브로커 개입,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입학 및 조기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미성년자의 안전 문제 등을 정점으로 제시했다.

또 UN 아동권리협약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 국제 기준에 비해 아동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국가 신인도와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전남미래국제교

외국인 학생 45명이 비자 발급 중단으로, 학생과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사전 통보와 장기간의 협의 과정을 강조하면서, 전남미래국제교외 학사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미 입학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 역시 진로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남도교육청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유예’ 또는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 운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도 제안할 방침이다.

김인수·임영진 기자 joinus@

범죄수의 세력...양형부당?

미년범 ○·캠보디아 등 해외 범죄 조직들이 다수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범죄수익금 490억원을 세탁한 40대 자금세탁 총장인 함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재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이 선고된 A씨(46)의 항소심을 종결.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해외 범죄조직이 송금한 약 49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 준 혐의.

그러나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이날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

이에 김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행을 벌인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 임영진 기자

광주·전남 27일·3월 2일 비

27일과 3월2일 광주·전남에 비가 내릴 것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큰 폭으로 벌어지는 전형적인 환절기 날씨를 보이겠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27일 광주·전남에 가끔 비가 내리고, 주말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3월2일에는 비가 오겠다.

27일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이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관측됐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보됐다.

3월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은 12~16도가 되겠다. 평년 기온(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10~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 침하, 토사 유출,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